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의 불안과 그림검사 반응 특성

주 리 애¹⁾
한양사이버대학교

김 현 진²⁾
아트앤마인드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진 이후 연평도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그림검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연평도에 거주하면서 포탄의 피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고등학생 26명이다. 연구도구는 인물화 검사, 이야기 그림검사와 한국판 상태불안척도이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발생 1달 반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청소년의 불안은 보통이거나 조금 불안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개인에 따라서는 매우 불안함을 보고하기도 했다. 둘째, 인물화와 이야기 그림검사 중 불안을 잘 반영하는 검사척도는 이야기 그림검사의 정서내용척도였다. 불안이 높을수록 이야기 그림검사에서 부정적인 정서내용을 많이 그렸다. 셋째, 이야기 그림검사에서 공격적인 자극을 선택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내용과 취약한 자기상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인물화 검사에서 코의 생략이나 지우기 반응, 인물의 크기 등은 부정적인 정서내용과 낮은 자기상, 높은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이 인물화와 이야기 그림검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검사가 투사검사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요어 : 불안, 인물화, 이야기 그림검사, 연평도 포격

1) 교신저자: 주리에,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 E-mail: juliet@hycu.ac.kr

2) 김현진, 아트앤마인드 소장

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0년 11월 23일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북한으로부터 총 170여발의 포탄이 날아와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주민 거주시설과 면사무소 및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파괴되었고, 전기 및 통신시설도 파괴되는 등 큰 피해가 생겼다.

분단 이후 북한과 정전 상태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전쟁 억지력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지적인 도발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전에도 연평도 앞바다에서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북한군과의 교전이 발생한 것이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등은 그러한 전쟁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건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분단 이후 최초라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손실과 재산손실 외에 생존자들의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들 수 있다.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극심하게 혼란된 상태를 경험하며 불안, 초조, 퇴행, 자아기능의 감소 등을 경험하게 된다(Lindy & Titchener, 1983). 전쟁은 한 개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사건상황적 위기(situational life crisis)이며, 이러한 위기를 겪는 개인은 극심한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며,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반복적이고 침투적인 기

억과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외상 경험은 그것을 겪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그 정도와 심각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Cohen(2003)은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고 적응의 발달과업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직면하는 정상적인 발달과업 외에 사건상황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 생활, 교우관계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 성인기의 일탈 행동이나 각종 부적응적 행동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Carrion, Weems, Ray, & Weiss, 2002; Johnson, Cohen, Brown, Smailes, & Bernstein, 1999).

재난 사건과 위기로 인한 외상을 겪은 청소년은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김동일(1995)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아현동 가스폭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사고 이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악몽을 꾸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하거나 긴장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상 후의 증상들은 사고 직후 뿐만 아니라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지나도록 계속 나타나기도 한다(이소우, 김용태, 김진숙, 반신환, 조성호, 1997; 이수연, 최용용, 김춘경, 2004). Terr(1983)은 외상 사건이 발생한지 4년 이후에도 성장기 아동들이 외상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외상 이후에 청소년들의 심리상태가 어떠한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들의 증상을 치료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상적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인 상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그림검사와 같이 위협적이지 않은 검사도구로 심리평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926년 Goodenough가 인물화 검사를 사용해서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한 이래, 그림검사는 성격의 다양한 측면과 심리내적 갈등, 가족 관계와 애착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Goodenough, 1926; Harris, 1963; Cosden, 1992; Flanagan & Motta, 2007; Motta, Little, & Tobin, 1993).

그림검사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구체적인 주제가 있는 검사와 주제가 없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림검사가 개발되었으며, 인물화나 집-나무-사람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 외에도 피검자가 보고 그릴 수 있는 자극을 제시하는 그림검사가 생겼다. 이렇듯 다양한 그림검사가 개발된 것은, 피검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맞추어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검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을 보다 면밀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검사들 중 Silver(2002)의 이야기 그림검사는 검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을 평가하고 자기상과 대인관계 및 정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림검사이다(Silver, 2005; 1993). 연구자들은 이 그림검사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자기상을 평가했고(Silver & Ellison, 1995), 성 범죄 청소년(Brandt, 1995)이나 자살 시도 청소년을 식별하려는 연구도 진행했다(Wilson, 1990).

이야기 그림검사를 사용한 국내 연구는 우울과 공격성을 비롯한 심리상태를 평가하고 문제행동을 식별하는 변별력을 평가했다. 아동의 우울을 평가한 연구로는 보육시설 아동(정은형, 홍은주, 2009)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강희숙, 2011), 초등학교의 우울을 평가해서 이야기 그림검사가 변별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문영희, 2007; 박하나, 2011; 손현숙, 김갑숙, 2008; 이현

경, 홍은주, 2008)가 있다. 그 외에 중고등학생, 소년원의 남학생, 여대생, 성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야기 그림검사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었다(안정윤, 전순영, 2014; 윤수현, 2006; 정지은, 2006; 주리애, 2011, 2006; 지혜정, 최외선, 2013).

인물화 검사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은 심리적인 요인 및 신체상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심리적 요인이 인물화에 반영된 것을 살펴본 연구로 성격검사로써의 인물화 검사(김기보, 2007; 유경미, 조용태, 2013; 한종덕, 1993), 지능과의 관련성(김상윤, 2005), 애착과의 관련성(정귀연, 2012), 정신과 환자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 연구(김재환, 정승아, 1997; 하정아, 1993) 등이 있다. 신체상에 관한 것으로는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에 따른 자존감 및 우울과 인물화의 관계(김새미나, 박희석, 2010)와 지체장애청소년의 신체상(오종은, 이수, 2005)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인물화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징만으로 구체적인 성격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개인이 지닌 특징이 인물화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적인 심리평가도구로서나 투사적인 성격검사도구로서 인물화는 임상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의 정도를 자기보고형 심리검사와 비언어적 그림검사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인물화와 이야기 그림검사가 상태불안을 평가하는 투사검사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검사를 사용해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불안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불안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상태불안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연평도에 거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26명인데 이들 중 이야기 그림검사만 그린 3명을 제외하고 23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3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 7명, 여자 16명이고,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6.12세(표준편차 .81)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구분	빈도(백분율)	합계
14	2 (8.7)	23 (100.0)
15	5 (21.7)	
16	8 (34.8)	
17	3 (13.0)	
18	3 (13.0)	
19	2 (8.7)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해비치 재단의 지원으로 2010년 12월말부터 한 달여 간 진행된 통합 예술치료 프로젝트 '하트 인 아트(Heart in Art)'의 일부 분으로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치료사와 무용치료사, 연극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예술심리치료사들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안정감 회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예술심리치료 프로젝트는 연평도 지역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김포시 LH 아파트 단지와 인천 영어마을, 인천 해군기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대상 학생들에게 총 20여회로 구성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포격사건이 발생한 지 약 40일 가량 흐른 이후인 2010년 12월 말부터 2011년 1월 초까지였다. 그림검사와 불안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은 치료 프로그램의 초반에 실시되었고, 미술치료사 3인이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시 방법을 설명한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모두 1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실시 순서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한국판 상태불안척도, 인물화, 이야기 그림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

1) 이야기 그림검사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test)는 14가지 그림 자극을 제시하고 이 중 2개를 선택해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Silver, 2002). 이야기 그림검사는 두 가지 유형의 자극 그림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형 A를 사용했고, 제시된 자극 그림은 다음과 같

다: 카우보이, 면사포를 쓴 여인, 파이프를 문 남자, 서 있는 아이, 낙하산을 탄 사람, 뱀, 고양이, 쥐, 공룡, 병아리, 나무, 칼, 화산, 성.

그림검사를 평가하는 채점척도는 정서내용 척도와 자기상 척도, 유머사용 척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머사용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척도를 사용하였다(표 2). 이 척도들은 Silver가

이야기 그림검사를 창안한 이래 개발된 척도들로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Silver, 2005, 2002, 1993).

본 연구에서 이야기 그림검사 채점은 두 명의 미술치료사에 의해 개별 실시되었고, 총 26장의 그림을 평가한 결과 채점 점수 간 상관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2. 이야기 그림검사의 채점척도

정서내용척도	1점: 매우 부정적 주제. a. 대상이 슬프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자살하려 하거나 죽었거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b. 관계가 파괴적이거나 타살하려 하거나 삶을 위협한다. 2점: 조금 부정적 주제. a. 대상이 좌절했거나 공포에 질렸거나 무서워하거나 운이 나쁘다. b.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이거나 적대적이다. 3점: 중립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주제. a. 대상이나 관계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다 있어서 양가적이거나 갈등적이다. b. 대상이나 관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4점: 조금 긍정적 주제. a. 대상이 운이 좋지만 수동적이다. b. 관계가 우호적이다. 5점: 매우 긍정적 주제. a. 대상이 행복하거나 목표를 성취했다. b. 관계를 그린 경우 보살피주거나 사랑한다.
자기상 척도	1점: 병적인 환상. 그림을 그린 사람은 슬프거나 무기력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자살하려 하거나 죽었거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점: 불쾌한 환상.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좌절했거나 운이 나쁜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점: 애매한 환상.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4점: 유쾌한 환상. 그림을 그린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운이 좋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5점: 소망을 성취하는 환상. 그림을 그린 사람은 행복하거나 사랑 받거나 강력하거나 존경할 만하거나 위협하거나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인물화 검사

인물화 검사는 피검자에게 A4용지와 연필을 제공하고 사람을 그리되 전체 인물을 그리고 만화 캐릭터나 막대기 모양으로 그리지 않도록 지시한다. 인물화 검사에서는 두 장에 각각 성별이 다른 인물을 그리는데, 첫 번째 그린 인물이 남성이면 두 번째 장에서는 여성을, 첫 번째가 여성이면 그 다음에 남성을 그리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에 그린 인물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인물화 채점은 신완수, 권정임(2002)과 정귀

연(2012)의 연구에 제시된 채점 기준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항목별로 해당사항의 유무를 판별하였다. 다른 항목은 모두 기존 연구와 동일하며 ‘크기’ 항목만 변경해서 사용하였다. 크기를 평가한 P21과 P22는 전체 반응의 평균값을 기점으로 그 값보다 크게 그린 경우 ‘큰 것’으로, 평균값보다 작게 그린 경우 ‘작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척도 외에 새롭게 실제 인물의 크기를 직접 사용하는 ‘신장’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3. 인물화 검사의 채점척도

필수구성	P1. 목의 생략: 목이 없거나 얼굴과 몸통의 구분이 없다 P2. 팔의 생략: 팔이 없거나 수가 틀림 P3. 발의 생략: 발이 없거나 수가 틀림 P4. 손의 생략: 손이 없거나 수가 틀림 P5. 눈 그림 미숙: 눈이 없거나 직선이나 점으로 그림 P6. 코 그림 미숙: 코가 없거나 직선이나 점으로 그림 P7. 입 그림 미숙: 입이 없거나 직선이나 점으로 그림
세부묘사	P8. 손 그림 미숙: 손의 처리가 미숙 P9. 사지 연결 미숙: 몸과 사지의 연결, 사지간의 연결이 미숙 P10. 옷과 몸의 경계 불분명: 옷과 몸의 경계가 불분명-투시도 같은 형태 P11. 눈동자 생략 P12. 머리카락 생략 P13. 성적특징 생략 P14. 치아 P15. 몸과 사지의 공간 없음: 몸통과 사지의 공간이 없다
선의 강약	P16. 선이 강하다: 선이 강하고 반복되어 있다 P17. 선이 약하다: 선이 희미하고 약하다
지우기	P18. 지우기
비율균형	P19. 팔/다리의 비대칭: 팔과 다리가 비대칭이다 P20. 얼굴, 몸통, 사지 비율 불균형: 얼굴, 몸통과 사지의 크기가 비율에 맞지 않고 불균형
크기	P21. 사람의 크기가 반응의 평균값보다 크다 P22. 사람의 크기가 반응의 평균값보다 작다
조망	P23. 미숙한 측면: 그림의 미숙한 조작이다
위치	P24. 위치: 사람의 위치가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있다

3) 상태-특성 불안 척도

참가자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 Vass, Jacobs(1983)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STAI-S)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STAI-T)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을 평가하는 20문항만 사용했다. 각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은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높을수록 불안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3)이 표준화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상태불안이 .93이었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그림검사의 척도별 반응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두 종류의 그림검사와 상태불안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격적 자극을 선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물화 검사의 척도마다 유무 두 종류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t*-test로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이야기 그림검사, 인물화 검사 및 상태불안척도 점수 결과

연평도 청소년 23명의 이야기 그림검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내용척도는 평균 2.47점, 자기상척도의 평균은 3.13점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그림검사의 척도별 점수대 분포를 보면, 정서내용척도는 1점이 가장 많았고, 자기상척도에서는 1점과 5점이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표 5는 인물화 검사의 하위척도별 빈도를 보여준다. 필수구성의 하위항목은 P1~P7이며, 세부묘사의 하위항목은 P8~P15이다. 팔을 생략한 사람은 없었으며, 몸과 사지의 연결이 미숙한 경우도 없었다. 옷과 몸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표현된 경우도 없었고, 머리카락을 생략했거나 혹은 치아를 그린 경우도 없었다. 몸과 사지의 공간을 두지 않은 경우도 없었고 팔다리가 비대칭인 경우도 전혀 없었다. 인물화 검사 척도 외에 새로 추가된 신장 지표에서 그림 속 인물의 크기를 직접 재었을 때 최소값은 5.1cm, 최대값은 26cm였으며 평균은 15.5cm, 표준편차

표 4. 이야기 그림검사의 결과

정서내용척도		자기상척도	
평균 (표준편차)	2.47 (1.45)	평균(표준편차)	3.13 (1.76)
점수	인원 (백분율)	점수	인원 (백분율)
1	9 (39.1)	1	7 (30.4)
2	4 (17.4)	2	2 (8.7)
3	3 (11.0)	3	1 (4.3)
4	5 (21.7)	4	6 (26.1)
5	2 (8.7)	5	7 (30.4)

표 5. 인물화 검사 척도별 빈도

구분	내용	반응수
필수구성	P1. 목이 없거나 얼굴과 몸통의 구분이 없다	2
	P2. 팔이 없거나 수가 틀림	0
	P3. 발이 없거나 수가 틀림	2
	P4. 손이 없거나 수가 틀림	3
	P5. 눈이 없거나 직선이나 점으로 그림	7
	P6. 코가 없거나 직선이나 점으로 그림	6
	P7. 입이 없거나 직선이나 점으로 그림	8
세부묘사	P8. 손의 처리가 미숙	6
	P9. 몸과 사지의 연결, 사지간의 연결이 미숙	0
	P10. 옷과 몸의 경계 불분명	0
	P11. 눈동자 생략	11
	P12. 머리카락 생략	0
	P13. 성격특징 생략	13
	P14. 치아를 그림	0
선의 강약	P15. 몸통과 사지의 공간이 없다	0
	P16. 선이 강하고 반복되어 있다	19
지우기	P17. 선이 희미하고 약하다	3
	P18. 지우기를 했다	8
비율균형	P19. 팔과 다리가 비대칭이다	0
	P20. 얼굴, 몸통, 사지 비율 불균형	1
크기	P21. 사람의 크기가 반응의 평균값보다 크다	14
	P22. 사람의 크기가 반응의 평균값보다 작다	8
조망	P23. 그림의 미숙한 조작이다	5
위치	P24. 사람의 위치가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있다	1

5.3cm였다.

참여자들의 상태불안척도의 평균은 47.91(표준편차 9.80)이었고, 최소값 30, 최대값은 70이었다. 상태불안이 49점 미만인 경우는 14명으로 60%였고, 50점대는 6명, 60점대 2명, 70점을 받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상태불안과 이야기 그림검사, 인물화 검사 간 상관

본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들의 이야기 그림

검사 결과와 상태불안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상태불안과 이야기그림검사의 정서내용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두 지표 간에 강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64, p<.01$). 이는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내용의 그림을 더 많이 그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상 척도는 불안과 어떠한 유의미한 관련도 나타내지 않았다. 인물화의 신장 지표는 불안이나 이야기 그림검사의 두 지표와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 그림

표 6. 상태불안과 이야기 그림검사, 인물화검사 간 상관

구분	상태불안	정서내용	자기상	신장
상태불안	-			
정서내용	-.64 **	-		
자기상	-.22	-.63 **	-	
신장	-.42	-.38	-.04	-

* $p < .05$, ** $p < .01$

검사의 두 척도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었다 ($r = -.63$, $p < .01$).

이야기 그림검사의 공격적 자극 선택에 따른 상태불안의 차이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는 14가지 자극을 제시하는데, 그 자극은 공격적인 자극과 피공격적인 자극, 중성적인 자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난폭하고 폭력적인 학생들이 공룡이나 화산, 칼, 뱀을 주로 선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Earwood, Fedorko, Holzman, & Montanari, 2005). 그리고, 우울과 분노,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사설 상담소에 내방한 20대 여성 내담자 및 이들과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한 20대 여성 일반인의 이야기 그림검사 자극선택 유형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내담자 집단은 공룡을 많이 선택하였다(주리아, 2006).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에서 공격적인 상

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극은 칼, 뱀, 공룡, 화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해당 자극을 선택해서 사용한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23명 중에서 칼이나 뱀, 공룡, 화산을 선택해서 그린 사람은 9명이었고, 이 네 가지 중 어떠한 것도 선택해서 그리지 않은 사람들은 14명이었다.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들은 정서내용 척도와 자기상척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공격적인 자극을 선택한 집단의 정서내용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고($t = -3.65$, $p < .01$), 자기상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46$, $p < .05$). 공격적 자극을 선택한 집단의 평균이 50.78점으로 선택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 46.07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7. 공격적 자극을 선택한 집단과 선택하지 않은 집단 간 비교

구분	선택집단 (N=9)	비선택집단 (N=14)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이야기 그림검사 정서내용	1.44 (.72)	3.10 (1.44)	-3.65**
이야기 그림검사 자기상	2.11 (1.83)	3.78 (1.42)	-2.46*
상태불안	50.78 (5.84)	46.07 (11.50)	1.13

* $p < .05$, ** $p < .01$

인물화검사의 척도별 결과에 따른 차이

인물화 검사의 하위척도별로 반응에 따라 두 집단을 구성해서 상태불안과 이야기 그림검사의 정서내용 및 자기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를 생략 여부, 지우기 여부, 크기의 대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코를 생략한 집단은 생략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서내용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t=-3.59, p<.01$). 그리고 코를 생략한 집단의 상태불안이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t=1.81, p<.10$). (표 8 참조).

인물화 검사에서 지우개를 써서 지우고 다시 그린 적이 있는 집단과 지우기를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해 정서내용과 자기상이 모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t=-4.31, p<.001$; $t=-4.20, p<.001$). (표 9 참조).

마지막으로, 인물화 검사에서 인물 크기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둘로 나누어 비교했을

표 8. 인물화 검사에서 코를 생략한 집단과 생략하지 않은 집단 간 비교

구분	생략 집단	생략하지 않은 집단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상태불안척도	50.56 (9.19)	42.50 (9.60)	1.81+
정서내용척도	1.84 (1.02)	3.83 (1.47)	-3.59**
자기상척도	2.87 (1.78)	3.66 (1.86)	-.91

+ $p<.10$, * $p<.05$, ** $p<.01$

표 9. 인물화 검사에서 지우기를 한 집단과 지우지 않은 집단 간 비교

구분	지운 집단	지우지 않은 집단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상태불안척도	51.38 (7.65)	46.64 (10.70)	1.09
정서내용척도	1.25 (.46)	3.03 (1.42)	-4.31***
자기상척도	1.50 (1.51)	4.00 (1.24)	-4.20***

*** $p<.001$

표 10. 인물화 검사에서 인물 크기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 간 비교

구분	큰 집단	작은 집단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상태불안척도	52.14 (9.62)	41.75 (6.08)	2.74*
정서내용척도	1.92 (1.32)	3.18 (1.36)	-2.12*
자기상척도	2.92 (1.97)	3.37 (1.50)	-.55

* $p<.05$

때, 크기가 큰 집단이 상태불안이 높고 정서내용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2.74, p<.05$; $t=-2.12, p<.05$). (표 10 참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진 이후, 연평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검사, 상태불안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심리상태와 그림검사 반응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건 발생 40일 이후에 질문지를 통해 보고한 불안의 수준은 보통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비록 상태불안검사 결과에서 70점 1명과 60점대 2명이 높은 불안을 보고했지만 전체적인 평균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체 23명 중 약 13%만이 높은 불안을 보였다는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즉,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생존자 58명 중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진단된 인원은 5명(우정희, 2012)으로 약 8%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이 불안과 무기력을 비롯해서 두려움, 우울, 취약성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연구(김순진, 김환, 2000; Everstine, & Everstine, 1993)에 비추어볼 때 다행스러운 결과이며, 외상 경험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간혹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자발적인 회복이 가능함을 언급한 연구(안현의, 2005; Rothbaum, Foa, Riggs, Murdock, & Walsh, 1992)와 일맥상통한다.

혹은 이러한 결과가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주요 예언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는데(Ehler, Mayou, & Bryant, 1998),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발발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우, 실제 전장에서 생존한 장병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한 결과, 사회적 반응에 대한 실망과 사회문화 속 무망감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장재현, 이기학, 2013). 그와는 달리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비록 주거지가 파괴되어 임시 보호시설에 와서 기거해야 했지만, 외부의 여러 지원과 사회적 지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안을 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자기보고형 심리검사 결과 외에 비언어적 그림검사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그림검사에서 과반수가 부정적인 내용을 그렸던 점이라든가, 23명 중 9명이 칼과 뱀 등 공격적 자극을 선택했다는 점은, 이들이 사고나 의식의 영역 외에 공상과 판타지, 무의식 영역에서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이야기 그림검사의 두 가지 지표들 중에서 불안을 잘 반영하는 지표는 정서내용척도였다. 자기상척도는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지만, 정서내용척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불안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이 이야기그림검사에서 부정적인 그림을 더 많이 그렸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그림검사가 투사적 검사로 활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피검자의 정서적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Burgess, Hartman, Wolbert, & Grant, 1987; DiLeo, 1973; Koppitz, 1968; Stember, 1980). 이야기그림검사에서도 부정

적인 정서적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정서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Silver(2005, 2002)의 연구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urner(1993)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체르노빌 핵 사고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 그림검사에서 부정적인 주제를 가진 그림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Silver, 2005)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그림검사의 정서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일 때가 많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이야기그림검사에서 공격적인 자극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서내용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불안한 심리상태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칼이나 뱀, 공룡, 화산 등과 같은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상징을 선택한 경우, 그림 내용은 더 부정적이었고 자기상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불안도 조금 더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칼과 같은 공격적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 파괴적이며 우울한 정서를 반영한다고 보고한 기존 결과(손현숙, 김갑숙, 2008; 윤수현, 2006)와 유사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이야기 그림검사의 관계를 보고한 박치홍(2013)의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은 중학생들이 칼, 뱀, 공룡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부록에 제시된 사례 그림에서도 칼의 사용은 자신을 상해하거나 자살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서 공격적 상징의 선택이 부정적 정서를 함축하고 있다는 가정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물화 검사에서 코를 생략한다거나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웠다거나 하는 반응은 불안이나 부정적인 정서내용과 관련이 있었다. 이 결과는, 그림에 나타난 표현이 피검자의 취약점이나 불안을 드러낸다(Guez, Lev-Wiesel, Valetsky, Sztul, & Perner, 2010; Machover,

1949; Koppitz, 1968; Willis, Joy, & Kaiser, 2010)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인물의 크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불안과 이야기그림검사의 척도들을 비교한 결과, 인물 크기가 큰 경우가 불안이 더 높고 정서내용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물화 검사에서 인물 크기가 개인의 자존감과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한 Machover(1949)의 주장이나, 문제를 가진 아동이 정상아동보다 유의미하게 작은 인물을 그린다고 한 연구 결과(Saneei, Bahrami, & Haghegh, 2011)와 대조된다. 비록, 상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인물 크기와 불안 정도가 선형적인 역상관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을 분기점으로 크게 그린 집단과 작게 그린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두 집단간 차이는 뚜렷했다. 즉, 인물을 크게 그린 경우에 상태불안이 더 크고 정서내용이 부정적이었는데, 이 결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큰 인물을 그림으로써 보상(compensation)해서 극복하려는 것에 기인했을 수 있다.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지우고 다시 그렸던 피검자들은 비슷한 크기로 다시 그리거나 혹은 더 큰 크기로 그리는 것을 보여줬는데, 다시 그린 그림에서 더 작은 인물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 경향성도 내면의 불안감을 과잉보상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 피검자가 인물 크기로 불안감을 상쇄하려는 보상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몇 피검자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산출하였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격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한 시점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외상적 사건의 특성상 그 후유증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외상 사건을 겪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과 인물화 및 이야기 그림검사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므로, 다른 상황에서 불안이 높은 경우 및 특성으로서 불안이 높은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외상을 겪은 생존자들이 충격적 경험 이후 언어적 표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비언어적 자기표현인 그림을 보다 질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평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회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희숙(201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수준에 따른 Draw-a-Story 검사의 그림 반응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기보(2007). 성격검사로서 인물화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7(1), 51-60.
- 김동일(1995). **대형사고에 따른 충격, 후유증, 대처방안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상윤(2005). 유아의 인물화 지능검사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연구**, 14, 79-100.
- 김순진, 김 환(200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 학지사.
- 김새미나, 박희석(2010).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자존감과 우울의 관계 및 인물화의 특성.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 153-181.
- 김재환, 정승아(1997). 인물화 검사에서 반대성을 먼저 그리는 정신과 성인 환자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2), 277-288.
- 문영희(2007). 아동 우울과 Draw-a-Story 검사 반응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박하나(2011). ADHD 성향 아동의 우울에 대한 DAS 반응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박치홍(2013). 중학생의 자살과 DAS 반응 특성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손현숙, 김갑숙(2008). 이야기 그림검사를 적용한 아동의 우울특성 분석. **미술치료연구**, 15(4), 721-740.
- 신완수, 권정임(2002). 아동의 양육환경변인에 따른 인물화 특성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2(1), 99-114.
- 안정윤, 전순영(2014). 중학생의 공격성과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Draw A Story검사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21(1), 127-144.
- 안현의(2005).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31-41.
- 오종은, 이 수(2005). 지체장애청소년의 인물화에 반영되는 신체상 특성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5(1), 39-63.
- 우정희(2012). 해외파병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5(2), 72-103.
- 유경미, 조용태(2013). 아동기 정서 행동문제의 선별을 위한 인물화 검사 타당화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9(2), 19-48.
- 윤수현(2006).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따른 Draw-a-Story 검사반응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소우, 김용태, 김진숙, 반신환, 조성호(1997). **청소년 위기 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수연, 최용용, 김준경(200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청소년 위기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행동연구**, 9, 1-12.
- 이현경, 홍은주(2008). Draw-a-Story 검사에 의한

- 아동우울 판별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2), 165-185.
- 장재현, 이기학(2013). 외상경험에 의한 심리적 어
려움과 회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천안
함 피격사건 생존장병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4(2), 1145-1164.
- 정귀연(2012). 아동의 애착과 인물화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19(6), 1337-1354.
- 정은형, 홍은주(2009). 보육시설 아동의 우울을 위
한 Draw-a-Story 검사의 그림 특성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1), 63-86.
- 정지은(2006).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Draw-a-Story 검사반응 특성 연구. 석사학
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대학원.
- 주리에(2011). 이야기 그림검사에 나타난 여고생의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미술치료연구**,
18(1), 65-79.
- _____(2006).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에 나타난
20대 여성 내담자 및 20대 여성 정상인
의 검사반응 비교. **미술치료연구**, 13(2),
387-403.
- 지혜정, 최외선(2013). 소년원 및 일반 남학생들의
우울, 분노에 관한 이야기 그림검사 반응
특성 연구. **미술치료연구**, 20(1), 1-19.
- 하정아(1993). 인물화 검사에 의한 주의집중결핍성
과잉행동아의 측정.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학교.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 Spielberger의 상태-
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pp. 505-
512). 한국심리학회.
- 한종덕(1993). 인물화 검사를 통한 정상 및 결손가
정 아동의 성격 비교. 석사학위논문, 순천
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 Brandt, M.(1995). Visual stories: A comparison
study using the Silver Art Therapy
Assessment with adolescent sex offen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rsuline
College, Ohio.
- Burgess, A. W., Hartman, C. R., Wolbert, W.
A., & Grant, C. A.(1987). Child
molestation: Assessing impact in multiple
victims (Part I).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1), 33-39.
- Carrion, V. G., Weems, C. F., Ray, R., & Weiss,
A. L.(2002). Toward an empirical
definition of pediatric PTSD: The
phenomenology of PTSD symptoms in
youth.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1, 166-173.
- Cohen, J. A.(2003). Treating acute posttraumatic
reac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iological Psychiatry, 53, 211-216.
- Cosden, M.(1992). Review of the Draw-a-Person:
A Quantitative scoring system. In J. J.
Kramer & J. C. Conoley. (Eds.), *The
eleve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pp.
287-289). Lincoln, NE: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s.
- DiLeo, J. H.(1973). *Children's drawings as
diagnostic aids*. New York: Brunner/Mazel.
- Earwood, C., Fedorko, M., Holzman, E., &
Montanari, L.(2005). In. R. Silver(Ed.).
*Aggression and depression assessed through
art: Using Draw-a-Story to identify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Brunner-Routledge.
- Ehler, A., Mayour, R. A., & Bryant, B.(1998).
Psychological predictors of chron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motor
vehicle acci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508-519.
- Everstine, D. S., & Everstine, L.(1993). *The
trauma response*. W. W. Norton. London.
- Flanagan, R., & Motta, R. W.(2007). Figure
drawings: A popular method. *Psychology
in the Schools*, 44, 257-270.
- Goodenough, F.(1926). *Measurement of intelligence*

- by drawings. Chicago: World Books.
- Guez, J., Lev-Wiesel, R., Valetsky, S., Sztul, D. K., & Pener, B-S.(2010). Self-figure drawings in women with anorexia bulimia; overweight; and normal weight: A possible tool for assessment. *The Arts in Psychotherapy*, 37, 400-406.
- Harris, D. B.(1963). *Children's drawings as measures of intellectual maturit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Johnson, J. G., Cohen, P., Brown, J., Smailes, E. M., & Bernstein, D. P.(1999). Childhood maltreatment increases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early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00-606.
- Koppitz, E. M.(1968). *Understanding children's drawings*. New York: Guilford Press.
- Lindy, J. D., & Titchener, J.(1983). Acts of God and man: Long-term character change in the survivors of disasters and the law.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3), 85-96.
- Machover, K. A.(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a human figure*. Springfield, Illinois: C. C. Thomas.
- Motta, R. W., Little, S. G., & Tobin, M. I.(1993). The use and abuse of human figure drawing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8, 162-169.
- Rothbaum, B. O., Foa, E. B., Riggs, D. S., Murdock, T., & Walsh, W.(1992).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455-475.
- Saneei, A., Bahrami, H., & Haghegh, S. A.(2011). Self-esteem and anxiety in human figure drawing of iranian children with ADHD. *The Arts in Psychotherapy*, 38, 256-260.
- Silver, R.(2005). *Aggression and depression assessed through art: Using Draw-a-Story to identify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Brunner-Routledge.
- _____(2002). *Three Art Assessments*. New York: Brunner-Goutledge.
- _____(1993). *Draw a Story: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age or gender difference*. New York: Trillium; Sarasota, FL: Ablin.
- Silver, R. & Ellison, J.(1995). Identifying and assessing self-images in drawing by delinquent adolescents. *The Arts in Psychotherapy*, 22(4), 339-352.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Vass, P. R., & Jacobs, G. A.(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s.
- Stember, C.(1980). Art therapy: A new use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xually abused children. *Sexual Abuse of Children: Selected Readings: 54-63*, Washington, DC., NCCAN.
- Terr, L. C.(1983). Chowchilla revisited: The effects of psychic trauma four years after a school-bus kidnapp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1543-1550.
- Turner, C.(1993). The Draw a Story in assessment of abuse. Pre- conference course presentation at the 1993 Conference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Atlanta.
- Willis, L. R., Joy, S. P., & Kaiser, D. H.(2010). Draw-a-Person-in-the-rain as an assessment of stress and coping resources. *The Arts in Psychotherapy*, 37, 233-239.
- Wilson, M. F.(1990). Art therapy as an adjunctive treatment modality with depressed hospitalize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rsuline
College, Pepper Pike: Ohio.

투 고 일: 2014년 03월 20일
수 정 일: 2014년 06월 18일
게재확정일: 2014년 06월 20일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drawing tests and the anxiety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the Yeonpyeong Island bombardment

Jue, Juliet
Hanyang Cyber University

Kim, Hyun-Jin
Art'n mind art therap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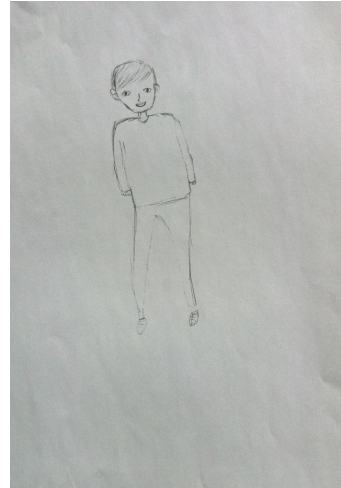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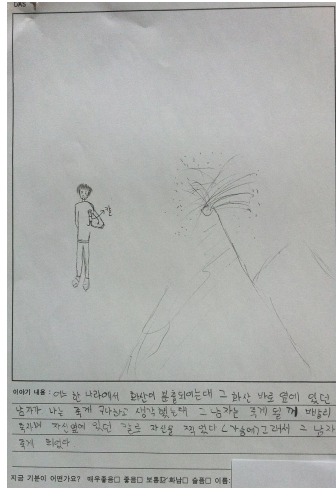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sychological state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the Yeonpyeong Island bombardment on November 23rd, 2010. The participants are 26 adolescents who have lived in Yeonpyeong Island and experienced the bombardment directly/indirectly. The research tools include human figure drawing, the Draw-a-Story test and STAI-K.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ly, the degree of anxiety were from normal to a slightly anxious when assessed in one and a half month after the incident. A few participants reported high anxiety. Secondly, it was the emotional content scale in the Draw-a-Story test which reflected anxiety best. The more they experienced anxiety, the more negative emotional contents in the Draw-a-Story test they drew. Thirdly, when aggressive symbols were chosen, the contents of drawings and self images became more negative. Finally, the omission of nose, erasing responses, and the size of figure have relation to negative contents, low self-image, and high anxiety. With all these results, the human figure drawing and the Draw-a-Story test express adolescents' anxiety. Also, this study reassures the possibility of drawing tests as projective tests.

Key Words : *anxiety, human figure drawing, Draw-a-Story, Yeonpyeong Island bombardment*

부록.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사례

그림 1. 15세 여학생의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사례	이야기 내용 : 남자는 너무 슬퍼서 칼로 찔러 죽으려고 칼을 들고 있다. 그는 이제 칼로 자신을 찔러서 죽을 것이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매우 슬프다 ☐ 화남 ☐ 걱정 ☐ 기쁨 ☐ 슬픔 ☒	
이야기 그림검사 내용: “남자는 너무 슬퍼서 칼로 찔러 죽으려고 칼을 들고 있다. 그는 이제 칼로 자신을 찔러서 죽을 것이다.”		
그림 2. 19세 남학생의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사례	이야기 내용 :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한번 본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특이한 병이 있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남자는 그 일이 너무 끔찍하고 두려워 자살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매우 슬프다 ☐ 화남 ☐ 걱정 ☐ 기쁨 ☐ 슬픔 ☒	
이야기 그림검사 내용: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한번 본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특이한 병이 있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남자는 그 일이 너무 끔찍하고 두려워 자살했다.”		

그림 3.
14세 여학생의
이야기
그림검사와
인물화 사례



이야기 그림검사 내용: “어느 한 나라에서 화산이 분출되었는데 그 화산 바로 옆에 있던 남자가 ‘나는 죽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죽게 될 거 빨리 죽자며 자신 옆에 있던 칼로 자신을 찌었다. (가슴에). 그래서 그 남자는 죽게 되었다.”